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15-18 May 2013년 5월 15일-18일
광주,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1980년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33주기를 맞아 개최된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2013년 5월 16-18일) 참가자는,

1. 2011년과 2012년 5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인권도시 비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실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2. 2011년 12월 11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린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 연합(UCLG) 이사회에서 채택된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에 대한 실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3. 2012년 12월 11-12일,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제 1회 도시권 정상회의의 성과들을 환영하고 또 재확인하면서,
4. 인권도시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전세계의 인권 옹호자와 민주주의 운동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연대를 표명하면서,
5. 한국 최초 인권담당관실 설치, 광주인권헌장 채택, 인권지표 개발에 이어 인권옴부즈만 신설 등 광주가 이루어낸 성취를 인정하면서,
6. 인권도시 구축의 맥락에서 열린 인권제도와 정책, 공무원 인권 교육, 건축과 인권, 불차별과 국가폭력, 환경, 장애, 젠더,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주제회의의 결과들을 인정하면서,
7. 아태지역 도시-지방정부연합(UCLG ASPAC), 도시-지방정부연합-세계민주화감시 (UCLG GOLD) 회의와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일부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 성과들을 인정하면서,
8. 2013 국제인권도시 논문공모전에 청년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포럼과 국제 인권운동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또 환영하며,
9. 인권도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보편적인 도구인 광주 인권도시 원칙 (광주 컴팩)

초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10. 포럼 주최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공동주관 단체인 5.18 기념재단, 5.18 연구소, 5.18 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이 포럼기간 동안 보여주신 아낌없는 환대와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채택합니다.

1. 도시-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아래로부터 인권을 보편화 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도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과 의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한다. ,
2. 뜻을 같이 하는 도시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그리고 관심있는 학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도시 비전을 증진한다.
3.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를 포함하여 유엔 기구를 통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권도시 비전을 증진하는데 한국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다.
4. 유엔 인권기구,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도시를 우선적인 의제로 다루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5. 유엔인권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하여 광주 인권도시 원칙을 완성시키며, 이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결론으로,

우리는 광주시가 2014년 인권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적 담론과 성찰의 장인 세계인권도시포럼을 2014년에도 네번째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5월 17일 광주